

[ 바둑 ]

‘돌부처’ 이창호 시대 저무나

2005년 춘란배 우승 이후 4차례 결승전 모두 패해 내주 전자랜드·왕위 단판승부, 패배만 19년만에 무관

이창호가 19년 만에 무관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 9단은 지난 1988년 KBS바둑왕전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최연소 타이틀 획득 기록을 수립했다. 현재까지 통산 국제대회 20회 우승(비공식 기전 제외)을 일궈낸 살아있는 신화로 통한다. 이창호는 2006년까지 국내와 세계 무대를 통틀어 131회나 우승했다. 그러나 슬픈 강적들을 제압하면 자신의 아성을 구축했던 이 9단이 바둑인생 20년만에 절지에 낭인(浪人)이 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05년 춘란배 우승 이후 현재까지도 국제대회와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다. 그는 춘란배 우승 이후 지금까지 삼성화재배에서 2번, TV바둑아시아선수권대회 1번, 최근 열린 후지쯔배까지 총 4차례 결승에 올랐으나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이 9단은 명성에는 턱없이 모자라지만 난해하지만 해도 춘란배, 전자랜드배, 왕위

국내, 바둑왕, 십단 등 국내 외 6개 타이틀 보유자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의 수중에 남아있는 타이틀은 전자랜드배와 왕위 2개뿐이다. 애잔한 타이틀을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않다. 전자랜드배 3번기에서는 1승1패, 왕위전 5번기에서는 2승2패를 기록중이다. 아쉽게도 모두 1판 승부로 타이틀이 오가는 큰 승부다. 이 9단은 오는 16일에는 신에 강동윤과 왕중왕전 결승 3국을 치른 뒤 이틀 후인 18일에는 윤준상과 왕위전 도전 5국이 예정돼 있다. 이 대국은 최근 건강이상설까지 겹치고 있는 이창호의 바둑인생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9단이 두 판을 모두 내줄 경우 본격적인 내리막을 걷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비판적인 전망도 나온다. 더욱이 이번에 만나는 기사들은 세대교체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에 강자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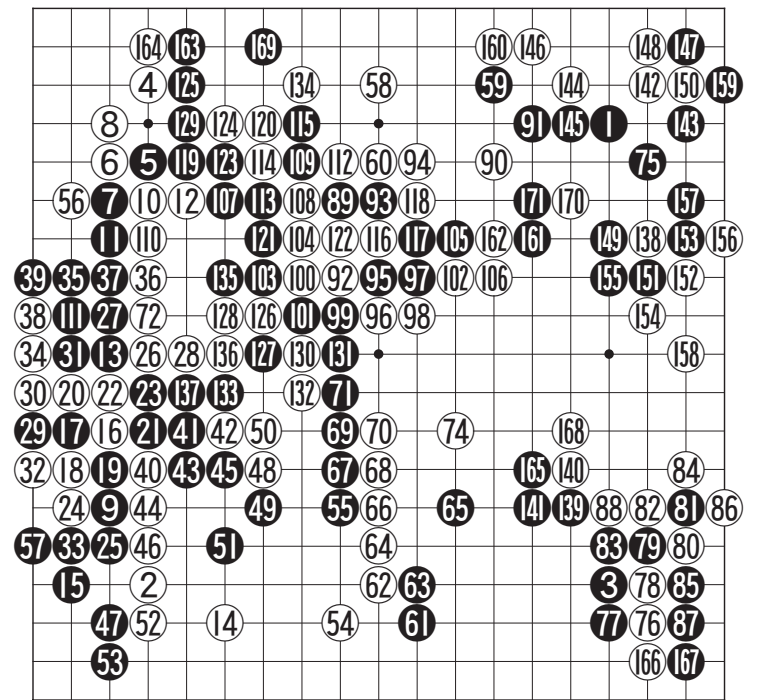
이창호 9단(왼쪽)이 최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4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결승 3번기 제1국에서 강동윤 5단과 대국하고 있다. (사이버오로 제공)

서 승부를 나란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윤준상은 이미 이창호 9단을 3대 1로 꺾고 국수 자리를 탈취했고 왕중왕전에서도 이창호 9단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역대 전적도 5승5패로 호락하다. 강동윤과도 2승1패의 전적을 유지하고 있어 설부터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칫 이 9단이 스타탄생의 재물이 될 우려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나무랄 일이 아니다. 과연 이창호 9단이 신예들의 추격을 뿌리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지 바둑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제16회 광일배 김광식 5단 완력의 승리 직장대항 단체 3회전 총보(1~171)

白 박광주 5단 (포스코) 黑 김광식 5단 (주승림)



이 바둑은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한판이다. 김광식 5단은 이지역에서 수십년 간 강호로 이름을 날리고 있고 박광주 5단도 포스코의 최강자로 일찍부터 명성을 떨쳐왔다. 옹호상박의 협투를 벌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 바둑은 초반에 승부가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은 박광주 5단이 투지가 앞선 나머지 좌변의 접전에서 백 28로 늘어버리는 초강수를 두었기 때문이다. 이 수로 29에 패해 살아두었으면 김승부가 되었을 것이다. 이후 박 5단은 40에 끊는 등 맹렬하게 저항했으나 김광식 5단은 역전의 용사답게 55까지 완벽하게 탈출하여 일찌기 우세를 확립했다. 이후 흑 89로 상변을 깊숙히 쳐

‘안갯속 명인전’ 누가 평정할 것인가

목진석 ‘빠격’ -선두권 멀어져

박정상·김승준·김지석 등 혼전

명인전이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혼전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선두 고지에서 상위권 주자들의 ‘육박전’이 벌어지면서 막판까지 우승후보를 잡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박정상 9단(사진)은 지난 10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5기 강원랜드배 명인전 본선리그에서 목진석 9단을 128수 만에 백 불계로 물리치고 리그 4승 2패를 기록했다. 이세돌 9단과 김지석 4단에겐 발목을 잡으면서 중위권에 머물렀던 박정상 9단은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인 목진석 9단을 꺾으면서 공동 1위로 도약했다. 목진석 9단으로서 두고 두고 아쉬운 패배가 됐다.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아치지 못해 결승 진출길이 산뻘어 산이다. 그



는 누적 패점이 ‘3’ 되면서 자력으로 결승에 오르는 길이 봉쇄됐다. 현재까지 명인전리그는 김승준, 박정상 9단과 김지석 4단이 4승 2패로 공동선두를 달리고 있고 아직까지 리그 일정을 덜 소화한 이세돌 9단은 3승 1패의 성적으로 공동 1위 그룹을 바둑 압박하고 있다. 이창호, 조한승 9단이 2승 3패의 성적으로 쳐져있는 것이 눈길을 끌고 있으며 목진석 9단은 4승 3패의 성적으로 한 계단 내려가게 됐다. 우승상금은 1억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運七技三?

〈윤철기담 = 기술보다 운에 좌우됨〉

최근 이세돌의 무패 행진이 아쉽게도 '24'에서 멈췄다. 바둑계에서는 연승기록의 경우 '능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따라줘야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국내 연승 최고기록 보유자는 누구일까. 주인공은 이창호다. 이창호는 지난 1990년 무려 41연승을 달성, 17년 동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위는 김인 9단으로 지난 68년 40연승을 거뒀다. 최근 24연승을 거둔 이세돌은 2000년 32연승으로 3위에 올라있다. 이밖에 조현현 9단이 31연승(1977년)으로 4위에, 이창호 9단과 한국기원 사무총장을 지낸 고(故) 임선근 9단이 25연승으로 공동 5위에 올라 있다. 1990년 4단이었던 이창호가 41연승을 거둬 무렵 한국 바둑계는

이세돌 25연승 무산, 바둑계 연승보유자 관심 '불패 소년' 이창호 1990년 41연승 대기록 세워

Table with 4 columns: 순위, 이름, 연승, 연도. Lists top Go players and their consecutive win records.

당연히 큰 관심과 애정으로 그의 연승 행진을 주목하고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까지만 해도 조현현 9단의 31연승이 최대 연승 기록 대접을 받고 있었다는 점. 한국기원이 이창호의 연승행진을 보며 새로운 기록의 탄생을 대비해 자료를 재정비 하던 중 김인 9단이 1968년에 세운 40연승이 새롭게 발굴(?)됐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이창호 9단의 대기록 역시 41연승이 아니라는 점이 재미있다. 당시만 해도 외

국이 주축하는 기전에 한국 기사가 참가하면 공식 대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지금은 없어진 한국 추최의 동양증권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는 공식기전으로 인정했지만 후지쯔배나 응씨배처럼 외국이 개최하는 대회는 비공식 기전으로 취급받던 것. 어쨌든 이창호는 연승을 거듭하던 중 6월 2일 제3회 후지쯔배 본선 3회전에서 일본의 고바야시 사토루에게 반집패를 당했다. 따라서 후지쯔배를 공식기전으로 치는 요즘 기준으로 보자면 이창호의 연승은 20연승에서 제동이 걸린 셈이다. 외국이 주축하는 기전을 한국기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이창호 9단이 41연승을 달성한 지 10여년이 지난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명인전’ 본선리그...이영구, 배준희 초단 놀러

이영구 6단이 7월 11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제35기 강원랜드배 명인전 본선리그에서 배준희 초단을 맞아 319수까지 가는 혈전 끝에 흑 반집승을 거뒀다. 두텁게 판을 짜던 배준희 초단은 이영구 6단이 중앙 백진영을 사각하러 하자 흑후를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졌다. 결국 마지막 반패를 이어가는 기사가 반집승을 거두는 드라마틱한 상황까지 이어졌고 아쉽게도 갯감이 부족한 배준희 초단이 반패를 지게 되면서 5시간에 걸친 사투는 흑반집승으로 마친 표를 찍게 됐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featuring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 (Good location commercial building) and '상가 전문' (Commercial specialis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무등공인중개사' (Mudeung Public Real Estate Broker) listing various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정우부동산' (Jeongwoo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첨단월계공인중개사' (Cheon-dan Woll-gye Public Real Estate Broker) listing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국민공인중개사' (National Public Real Estate Broker) listing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지부동산' (Daegi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특급상가 매매·임대' (Special Commercial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BM公認仲介士事務所' (BM Certified Real Estate Brokerage Office) listing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